

유신진화론에 대한 신학적 변호

신학적 개념으로서의 "창조"를 중심으로

발표자

정대경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 종교와 과학

Theological Defense of Theistic Evolution

01

문제 제기와 연구의 목적

왜 유신진화론의 신학적 변호인가?

- * 유신진화론에 관한 논문과 저서는 적지 않으나, 본격적 신학적 변호는 드문 현실
- * 미국 주류 교단(장로교·감리교·성공회)은 이미 창조과학을 비판하는 총회 결의문을 채택
- * 그러나 한국 교회 맥락에서는 여전히 창조과학·지적설계론이 강한 영향력 행사

본 연구의 목적

유신진화론이 단지 현대 과학을 수용한 신학적 타협이 아니라, 성서의 창조 이해와 기독교 전통의 창조 교리에 충실한 입장임을 변호하고자 함.

유신진화론이란 무엇인가

기본 정의

현대과학의 우주 · 생명 · 인간 기원 이론
과 기독교 창조신앙 사이의 대화 · 상호작
용 · 종합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를
이해하는 입장

유신진화론에 대한 신학적 변호

유사 용어들

- 유신진화론 (theistic evolution)
- 진화창조론 (evolutionary creationism)
- 진보적 창조론 (progressive creationism)
- 능력으로 충만한 창조 (Van Til)
- 바이오로고스 (Collins)

학자들 사이의 세부적 차이 (3가지 축)

1. 신적 개입(divine intervention) 인정 여부

↳ 워필드 (인정) vs. 러셀 (비개입주의)

2. 신적 행위의 물리적 차원(causal joint) 직접 상정 여부

↳ 풀킹혼 (카오스 이론) vs. 반 틸 (잠재적 능력 부여)

3. 하나님의 본질적 변화 인정 여부

↳ 과정신학 vs. 종말론적 신학 (판네프르크 · 몰트만)

3

유신진화론의 공통점 ① — 과학적 측면

유신진화론은 우주와 생명, 인간의 출현에 관한 현대과학의 핵심 설명을 수용한다.

긴 시간

Deep Time

우주는 약 137억 년의 역사

지구는 약 46억 년의 역사

생명과 인간은 장구한 시간 속
에서 출현

자연선택

Natural Selection

생명체는 유전변이와 자연선
택을 통해 변화하고 분화

진화 과정에는 우연과 선택이
함께 작용

공통조상

Common Descent

모든 생명체는 공통조상으로부터
유래

인간 역시 생명 전체의 역사와
깊이 연결됨

유신진화론에 대한 신학적 변호

4

유신진화론의 공통점 ②-1 — ‘우연’의 신학적 이해

01 길들여진 우발성 (Tamed Chance)

진화 과정의 우연은 무질서한 것이 아니라, 자연 체계들의 상호작용 속에서 나타나는 질서화된 우연(자기조직화, Order out of Chaos, 이상한 끌개 기반의 창발)으로 이해된다.

학자: 돌린론, 피콕

02 양자역학의 비결정성 (Quantum Indeterminacy)

양자역학이 상정하는 존재론적 우연성은 개입주의적 파괴 없이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세계 내 행위 공간(QM-NIODA)으로 기능한다. (예: DNA 수소결합의 변이)

학자: 러셀, 머피

03 신학적 목적과 방향성 (Directionality)

자연과학적 측면에서는 진화의 방향성을 확정적으로 상정할 수 없지만, 신학적 차원에서는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지향성이 실현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신학적 해석

유신진화론의 공통점 ②-2 — 공통조상과 하나님의 형상

공통조상과 인간

유신진화론은 인간이 다른 생명체와 공통 조상을 공유한다는 진화학의 설명을 수용합니다.

• 고유 가치 훼손 아님

공통조상의 수용이 인간의 고유한 신학적 가치와 존엄성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 존재론적 연결성

오히려 인간이 생태계 및 생명 전체의 역사와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해 줍니다.

Imago Dei와 심층 성육신

1.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의 재해석

비물질적 영혼이나 생물학적 특별함이 아닌, 피조 세계를 돌보는 소명과 관계적 책임으로 이해됩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우리는 그를 닮아감으로써 이를 실현합니다.

2. 심층 성육신 (Deep Incarnation)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단지 '인간'이 되신 것이 아니라, 진화의 산물인 물리적 '물질/살' (요 1:14, *sarx*)이 되신 우주적 사건입니다.

3. 세상의 형상 (Imago mundi)

따라서 성육신은 인간 구원만을 넘어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거대한 구원론적 비전을 제시합니다.

05

신학적 동기 ①

진리정합설과 '두 권의 책'

핵심 명제

- 신학과 과학은 **동일한 실재**를 서로 다른 방법으로 탐구하는 인간의 두 가지 활동
- 따라서 각각이 산출하는 지식은 근본적으로 **모순될 수 없음**

'두 권의 책' 전통

- **계시의 책**: 성서와 그것을 해석해온 전통
- **자연의 책**: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 읽어내는 세계

자연과학 지식의 신학적 의미

- 자연을 아는 **직접 데이터**이자 하나님을 아는 **간접 데이터**
- 결론적으로 자연신학(Natural Theology)이 아닌 '**자연의 신학**'(Theology of Nature)을 지향

유신진화론에 대한 신학적 변호

7

06

신학적 동기 ② — 방법론과 신정론

방법론적 자연주의 ≠ 형이상학적 자연주의

자연과학은 **방법론적 자연주의**를 전제로 한 학문적 탐구 활동

이를 **형이상학적 자연주의**로 확장하여 무신론적 세계관으로 단정하는 것은 과학적 태도가 아닌 철학적 태도

"환원(reduction)"의 차원 구분 필요:
인식론적 환원 vs. **존재론적 환원**

"과학"(방법)과 "과학자"(세계관 및 철학적 입장) 구분의 중요성

신정론적 동기

창조의 시제적 이해:
태초의 창조(*creatio originalis*)와 동시에 진행 중인 **계속적 창조**(*creatio continua*) 수용

자연악(대멸종, 악육강식 등)을 단순히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환원하여 설명하는 **창조과학의 한계 극복**

자율적 피조물과의 동역이 **진화 과정의 고통(자연악)**과 **하나님의 신적 사랑을 함께 설명**할 수 있는 신학적 자원을 제공

유신진화론에 대한 신학적 변호

8

성서의 창조 이해

구약성서: 신앙고백으로서의 창조 이해

- 고대근동의 신화적 모티프 재구성: 가장 오래된 창조 본문들 (시편 29, 74, 89편)
- 시편 29편, 이스라엘 왕의 통치 맥락에서 고백되는 우주적 질서; 시편 74편은 바빌로니아 포로기 맥락에서 완성
- 제2이사야, 창세기 1장: 바빌로니아 포로기의 절망 속에서 고백된 우주적 창조주

신약성서: 기독교적 창조 이해

- 구약의 신앙을 계승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와 새창조의 중심으로 고백 (고후 5:17)
- 지혜 기독교: 잠언의 인격화된 지혜가 골로새서(1:15-17), 요한복음(1:1,3), 히브리서(1:10)의 그리스도론으로 발전

결론적 통찰

'손을 통한 창조'와 '말씀을 통한 창조'의 방법론적 논쟁을 넘어서, 성서의 창조 이해는 '어떻게'가 아닌 '구원의 경험에 근거한 신앙고백'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이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이다.

여호와와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렛소리를 내시니 여호와와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와 소리가 힘 있음이며 여호와와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와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심이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론으로 들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와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와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와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갭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시편 29:1-10)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시편 74:12-17, 개역개정)

기독교 전통의 창조 이해

네 가지 핵심 명제

1 하나님은 물리적 · 비물리적 실재 모두의 창조자

헬라적 이원론, 영지주의 반박
(니케아·콘스탄티노플 공의회)

2 무로부터의 창조 (*creatio ex nihilo*)

고대근동·그리스 신관과의 결별

3 창조는 순간이 아닌 과정

아우구스티누스의 *rationes seminales* → 아퀴나스 → 칼뱅

4 계속적 창조는 피조물과의 동역

아퀴나스의 이중 행위자성, 제2차 오랑주 공의회 등

창조의 세 시제

태초의 창조
creatio originalis

계속적 창조
creatio continua

새로운 창조
creatio nova

유신진화론에 대한 신학적 변호

10

권장되는 창조 이해 ① — 공명과 비판적 실재론

1. 진리통합설 맥락의 "공명"

과학적 진리와 신학적 진리 사이의 상호 율림과 조화를 추구하며, 진리를 하나로 보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인식론적 태도를 계승합니다.

2. 비판적 실재론 (Critical Realism)

소박실재론이나 반실재론을 지양하는 중도적 입장으로, 우리의 신학적 창조 모델은 잠정적이며 언제나 수정될 수 있는 것임을 인지합니다.

“대개 비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땅과 하늘, 그리고 이 세계를 구성하는 다른 요소들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또한 별들의 움직임과 궤도, 그것들의 크기와 상대적 위치, 태양과 달의 예측 가능한 일식과 월식, 연도와 계절의 순환, 동물과 식물과 돌들의 종류 등에 대해서도 알고 있으며, 이러한 지식을 이성과 경험을 통해 확실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런데 어떤 불신자가, 한 그리스도인이 성경의 의미를 설명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주제들에 대해 터무니없는 말을 하는 것을 듣게 된다면, 그것은 매우 부끄럽고 위험한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엄청난 무지를 드러내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그러한 난처한 상황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문제는 단지 무지한 개인 한 사람이 비웃음을 당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문제는 신앙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 저자를 자체가 그러한 (어리석은) 견해를 가졌다고 생각하게 되는 데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구원을 위해 애쓰고 있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손해가 발생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 저자들을 무식한 사람들로 비난하고 거부하게 되기 때문이다. 만약 그들이 어떤 그리스도인이 자신들이 잘 알고 있는 분야에서 틀린 말을 하는 것을 보고, 동시에 그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도 어리석은 주장을 고집하는 것을 듣게 된다면, 어떻게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이나 영원한 생명의 소망, 하늘나라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믿을 수 있겠는가? 그들은 성경이 이미 자신들의 경험과 이성의 빛을 통해 알고 있는 사실들에 대해서도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 Augustine, *The Literal Meaning of Genesis*, 1:19.39

유신진화론에 대한 신학적 변호

11

권장되는 창조 이해 ② — 경계와 거대 드라마

과학과 신학의 경계 분명히 하기

- 톨리히의 두 이성 개념
존재론적 이성 vs 기술적 이성의 구분
- 양극단 회피
과학주의적 자연주의와 초자연주의 모두를 경계
- 자연신학의 오해 불식
자연신학(Natural Theology) ≠ 자연의 신학
(Theology of Nature)

유신진화론에 대한 신학적 변호

창조-구속-종말의 거대 드라마

1. 샤르댕의 오메가 포인트
일방향적 진보에 대한 비판은 수용하되, 우주적 목적성을 강조
2. 위르겐 몰트만
현대 의학과 기술의 발전 역시 하나님의 계속적 창조의 한 양상으로 이해
3. 종말론적 지향
이사야 11장이 묘사하는 피조계 전체의 평화 질서를 향한 회복과 완성

12

결론 — 유신진화론의 신학적 강점

- | | | |
|----|-----------|--|
| 01 | 성서적 충실성 | 창조 본문의 신앙고백적 성격에 대한 현대 성서학의 통찰 수용 |
| 02 | 전통적 충실성 | 계속적 창조와 동역적 창조라는 교부·중세·종교개혁 전통의 자원 활용 |
| 03 | 인식론적 정직성 | 진리정합설과 비판적 실재론에 기반한 학제 간 대화 |
| 04 | 신정론적 설득력 | 자연악에 대한 일관된 신학적 응답 가능 |
| 05 | 기독교론적 풍요성 | 심층 성육신(deep incarnation) 개념을 통한 모든 피조물의 화해 비전 (골 1:20) |

유신진화론에 대한 신학적 변호

13

논찬문		기독교학문연구회	
주제 강연	유신진화론에 대한 신학적 변호	발표자	정대경
		논찬자 (소속)	차수진 (한양대 류마티즘연구원)

발표자는 유신진화론 진영의 다양한 신학적 견해를 잘 소개하셨고, 성서와 기독교 전통으로부터 진화론과 양립 가능한 창조론의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현대 과학을 수용하면서도 기독교 신앙을 이어갈 수 있음을 설득력 있게 논증하셨습니다. 특히 어거스틴의 인용을 통해, 선불리한 쪽 창조 모델을 고수하는 것이 비그리스도인에게 진리를 전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한 대목은 오늘날에도 중요한 태도라 여겨집니다. 창조 모델은 '모델'이기에 오류 가능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언급에 깊이 공감합니다. 이는 신중하면서도 열린 태도를 요구하는데, 저는 이러한 태도야말로 오히려 성경의 권위를 더 깊이 인정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가진 해석의 틀을 통해서만 창조를 이해할 수 있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러한 신중함과 열린 자세로,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벧전 3:15)는 말씀을 상고해봅니다. 저는 유신진화론 과학자 입장에서 유신진화론 논의와 관련하여 몇 가지를 정리해보았습니다.

1. 유신진화론은 과학이 아닙니다. 유신진화론은 유신론(theism)과 진화론(evolutionary theory)이 결합된 개념으로, 측정 불가능한 신을 전제하는 유신론적 요소를 포함하기에 과학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이 점을 과학자로서 명확히 해두고 싶습니다. 아울러 '유신진화론'이라는 명칭은 '진화론'이 단어의 중심에 놓여 마치 과학의 일부인 것처럼 오해를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창조를 중심에 두면서 그 과정을 진화과학으로 이해하는 '진화적 창조'(evolutionary creationism)라는 용어가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바이오로고스(BioLogos, <https://biologos.org>)에서 제안한 표현입니다.

2. 진화론은 엄밀한 과정을 거쳐 정립된 과학 이론입니다. 유신진화론이 과학이 아니라고 해서, 그것이 받아들이는 진화론 자체까지 흔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진화론은 다윈의 『종의 기원』(1859) 이후 약 167년간 축적된 이론으로, 유전학(genetics), 유전체학(genomics), 집단유전학(population genetics) 등의 발전을 견인하며 현대 의학의 중요한 과학적 토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전학자 테오도시우스 도브잔스키(Theodosius Dobzhansky)가 1973년에 말했듯, "진화의 빛 아래서가 아니면 생물학 안의 그 어떤 것도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고유전체학(paleogenomics)은 고대 DNA 분석을 통해 인류의 진화적 뿌리를 추적하는 학문으로, 이 분야의 대표적 인물인 스반테 페보(Svante Pääbo)는 네안데르탈인(Neanderthal) 유전체를 최초로 해독하고 데니소바인(Denisovan)의 존재를 처음 입증한 공로로 2022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했습니다(Green et al., *Science*, 2010; Reich et al., *Nature*, 2010). 최근 하버드 의대·브로드 연구소(Broad Institute) 연구팀은 서유라시아 고대인 15,836명의 유전체

를 분석하여, 지난 1만 년간 479개 이상의 유전자좌에서 방향적 자연선택(directional selection, 특정 유전 변이가 수천 년에 걸쳐 일관되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현상)이 일어났음을 확인했습니다(Akbari et al., *Nature*, 2026). 흥미롭게도 이 발견은 발제문의 논지와 공명합니다. 진화가 완전한 무방향적 우연이 아니라 면역, 체형, 대사 등 생존과 직결된 형질들을 향해 일관된 방향성을 지닌다는 사실은, 발제자가 말하는 "tamed chance(길들여진 우연)" — 우연이 거시적 시스템과 상호작용하며 질서를 산출한다는 개념 — 와 신학적 대화의 접점이 됩니다.

3. 진화주의(evolutionism)는 거부해야 합니다. 교회 안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세 개념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화는 자연에서 관찰되는 현상이고, 진화과학은 그것을 설명하는 학문이며, 진화주의는 "진화론이 옳다면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세계관적 주장입니다. 진화론은 신의 존재 여부를 다루는 학문이 아니므로, 진화론으로부터 무신론을 도출하는 것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세계관적 비약입니다. 저와 같이 진화론을 받아들이면서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데, 이는 과학의 결론이 아니라 개인의 신념과 세계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과학은 믿음에 대한 답을 주지도, 줄 수도 없습니다.

4. 하나님의 형상, 과학자로서의 고민을 나눕니다. 유전체 분석을 통해 인간과 침팬지의 유전체가 약 98% 일치한다는 사실, 그리고 공통조상으로부터 유래한 인간이 다른 생명체와 유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과학적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깊이 고민하게 합니다. 이 지점에서 발제자의 통찰이 인상 깊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 존재 자체의 특별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부름받은 소명의 특별함이라는 것입니다. 과학이 밝혀주는 인간의 유전적 연속성과 신앙이 고백하는 인간의 소명적 특수성이 어떻게 함께 이야기될 수 있는지, 신학자와 과학자가 함께 더 깊이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창조와 진화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그리스도인 신학자와 과학자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논의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귀한 일로 여겨집니다. 각자의 입장을 솔직하게 나누되 서로를 존중하는 이 대화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를 더욱 건고히 세워가는 데 작은 기여가 되기를 바랍니다.